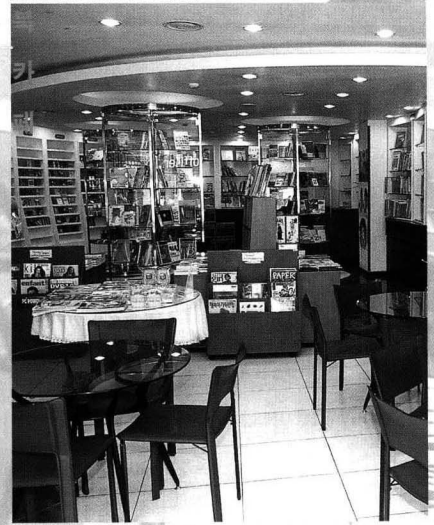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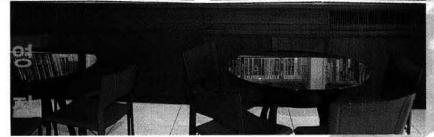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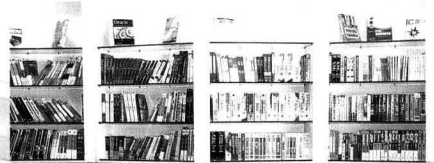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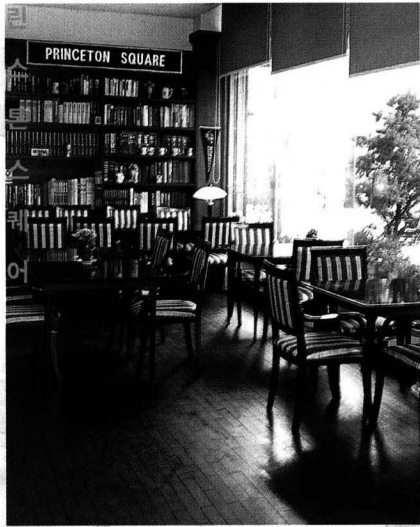


봄에 취하고, 책에 취하고...

프



연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금화터널로 들어가는 방향에 위치. 클래식 음악이 흐르기에 책읽기에는 더없이 좋은 공간이다. 주변 경관이 조용하고, 연대 어학당 학생들이 자주 오는 만큼 학구적인 이미지를 자아낸다. 넓은 공간을 활용해 소파형 의자에서 차를 마실 수 있도록 했다. 개인 서재에서 차를 마시는 듯한 느낌을 준다. 사장의 개인 책을 가득 담은 책장이 고풍스럽다. 스터디하기 좋은 장소다.

10:00 ~ 23:00 | 음료: 4,500원대 | TEL: 393-5171

3호선 안국역에서 정독도서관으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 창가에 장식된 꽃들이 산뜻한 봄 분위기를 전해준다. 덕성여중고와 정독도서관 부근에 있기 때문에 주손님층이 젊다. 주말에는 아트선재센터로 영화·전시 관람을 온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곳. 벽에 걸린 특별한 그림들이 눈에 띄고, 창문이며 꽃장식, 화분 등이 인형의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준다.

12:00 ~ 23:00 | 격주 월요일 휴무 | 음료: 4,000원대

TEL: 722-8929

서초동 남부터미널 부근에 위치. 영진닷컴 건물 1층에 있는 북카페 겸 서점이다. 주로 영진에서 나오는 컴퓨터 관련서들을 비치하고 있고, CD, 소프트웨어, 일반상품도 판매한다. 북카페는 직원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직원들과 외부인과의 미팅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물론 일반인들의 방문도 대환영. 빌딩으로 가득 찬 도심가에서 편안한 휴식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09:00 ~ 20:00 | 음료: 3,000원대 | TEL: 2105-2016

차 한 잔과 음악, 봄별...그 속에서 책을 읽는 것은 안식과 다름없다. 안식은 겨우내 움츠렸던 근육을 이완시켜 주고, 정신의 각질조차 부드럽게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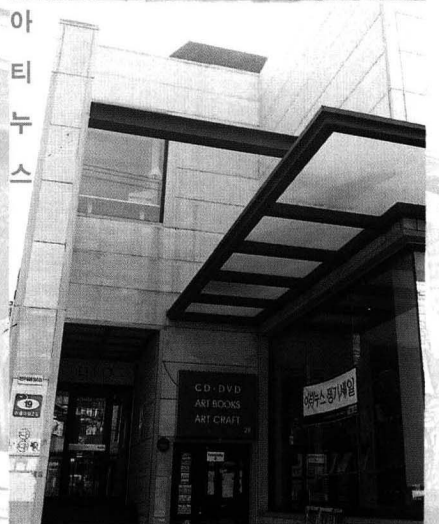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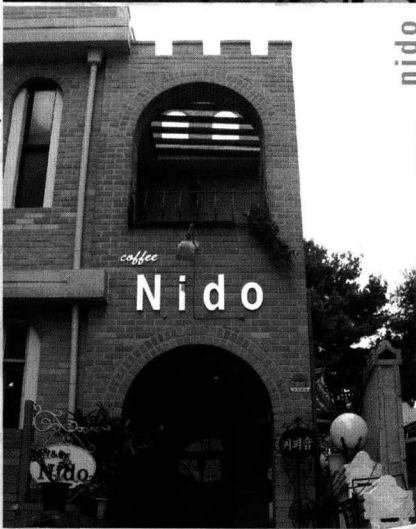
몸은 도심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교외에 나가 있다. 봄, 들뜬 한 송이를 바라보듯 편안하게 책읽는 시간을 가져다 줄 '책읽기 좋은 집' 을 소개한다. **추천**

취재 김청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세 상



nido



아 티 누 스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삼청동 방향으로 들어가는 길에 위치. 성처럼 생긴 벽돌색 건물이 동화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이탈리아로 '등지' 라는 의미의 'Nido' 는 이름처럼 아담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카페. 경복궁과 미술관 주변에 위치해 있기에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곳이다. 외부의 벤치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거나 그곳에 앉아 책을 읽어도 좋다.

10:00~22:00 | 음료: 7,000원대 | TEL: 735-0228

아현동 굴레방다리에서 애오개역으로 가는 방향에 위치. 현암사 사옥 1층에 마련된 북카페. 테이블 수는 많지 않지만 아담하고 소박한 이미지가 편안하게 다가온다. 꼬마 손님들을 위한 '어린이메뉴' 가 마련되어 있고, 사장 과 직원들이 외국 출장 시 직접 구입했다는 '책을 읽고 있는 인형들' 이 책장 위에 전시되어 있다. 아현동·공덕동 주민과 어린이들이 자주 찾는다.

10:00~20:00(주말은 01:30) | 음료: 어른 2,500원대, 어린이 500원대 | TEL:313-8020

홍익대 부근에 위치. 회색색 건물이 고전적이면서 세련된 느낌을 전해준다. 예술서적을 판매하는 아티누스와 차, 와인 등을 판매하는 카페 리브로 는 분리된 공간. 아티누스는 미술서적을 주로 취급하는 1층 공간, 예술품을 주로 판매하는 2층 공간,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까지 겸하고 있는 3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외국서점의 예술코너에 온 것과 같은 분위기를 전해주며 쉽게 볼 수 없는 의서들을 소개한다는 장점이 있다.

10:30~20:30 | TEL: 326-2326